

공유도시의 진화

정다예 | CC Korea
daye.jung@gmail.com

1.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공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오래 전부터 인류가 행해 온 공유

□ 이전부터 공유를 실천해 온 인류

- 공유와 협력을 통해 커뮤니티의 존속과 번영이 이루어졌음
- “협력이 등장한 집단들은 완전히 이기적인 행위만으로 이루어진 집단들에 비해서 보다 깨끗하게 버틴다.”¹⁾

□ 역사적으로 공유의 전통이 존재한 우리나라

- 부족함을 정(情)으로 보완해 온 인력 공유 전통의 예
- 두레(중남부지방 논농사 지대에서 한 마을의 성인 남자들이 협력하며 농사를 짓거나, 부녀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길쌈을 하던 공동노동조직)
- 품앗이(일을 서로 거들어 주어 품을 지고 갚는 교환노동)

전세계적으로 공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

□ 불경기와 과소비 시대, 이웃 관계가 사라진 도시 문제의 해결책

- 레이첼 보츠먼(Rachel Botsman) 저 ‘위 제너레이션(What’s mine is yours)’에서 언급한 공유의 이점

- 환경친화적 : 자원을 나누어 쓰면 이것이 고갈될 때까지 쓸 수 있어 불필요한 쓰레기 발생 저하
- 경제적 : 이용할 때 저렴하고 공유할 때 부가적 수입 발생
- 커뮤니티 회복 : 공유를 매개로 관계 맺음 발생, 자연스러운 이웃 공동체 회복

1) 마틴 노박 · 로저 하이필드, 2012

□ 정보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발전에 따른 안전하고 용이한 공유 가능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발달로 개인들이 익명보다 실제 아이덴티티로 온라인 활동을 하게 되어 양심적으로 활동→SNS 연동 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거래의 안정성 상승
- 동일한 니즈가 있는 개인들을 서비스 시스템 등을 통해 연결해 이전보다 손쉬운 공유 가능

2. 세계 공유도시 사례

적극적으로 공유를 실천하고 있는 세계 도시 사례

□ 대표적인 공유도시(Shareable City) 샌프란시스코

- 배경 : 1970~80년대 평화운동의 메카로, 진보적인 지역색과 타인과 공유를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발히 활용
-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
 - 우수 공과대학 소재, 실리콘 벨리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공유 활동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등장
 - 도시민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 일감과 시간 공유하는 태스크래빗(TaskRabbit) 등의 기업들이 성장리에 운영 중(경제지 포브스에서 특집 기사로 다루며 주목)



〈그림 1〉 포브스 공유경제 특집 표지 모델로 선정된 에어비앤비(Airbnb) CEO 브라이언 체스키(2013년 2월)

- 초기에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했으나 공유 문화의 가능성을 보고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
 - 공유경제 워킹그룹(Sharing Economy Working Group)을 조직했고 최근 샌프란시스코 내 공유문화 단체와 기업의 연합단체인 베이-셰어(BayShare)와 시정부 재난관리본부가 파트너십을 체결

□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밴쿠버

- 배경 : 자동차, 자전거, 사무공간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주목

-공유경제 연구지원

- 시에서 공유가 가능한 아이템과 서비스 연구에 \$15,000 지원(연구주체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20,000을 추가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중)
- 시정부 지원의 가장 큰 목적은 환경보호와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관련사업과 비영리단체 확대

□ 바르셀로나의 유희공간 활용 실험

-배경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

- 스페인 소매영업 30개월간 연속 하향(2013년 1월 기준)
- 실업률 26%(청년 실업률 55%) (2013년 1월 기준)

-상가 유희공간에 사회적 프로젝트 진행

- 영국 비영리단체 3SPACE가 시와 협업하여 추진
- 경기침체로 공실 상태에 놓인 상가건물을 건물주와 협의하여 사회적 문화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커뮤니티 회복

경제	지역 상권 부활
문화	팝업 극장, 갤러리, 공연 리허설 공간 등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풍성해진 문화
환경	기존의 자원을 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
시정	유희공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 교육, 커뮤니티 참여, 자립 프로젝트 등
미래연구소(Institute for the Future)의 앤서니 타운젠드 박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서로의 서비스 제공자가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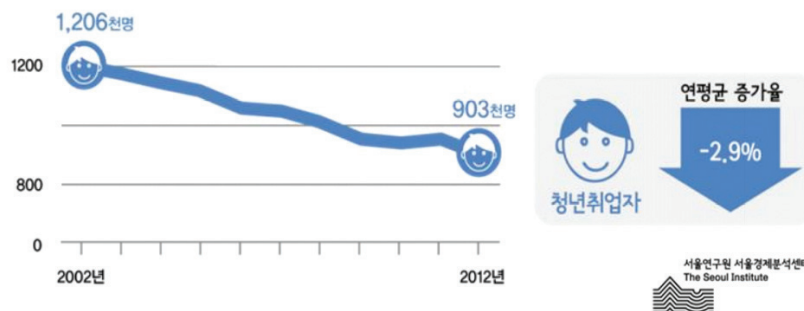
〈표 1〉 바르셀로나 유희공간 활용 실험 효과

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공유도시’ 서울

□ 시민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로서의 ‘공유도시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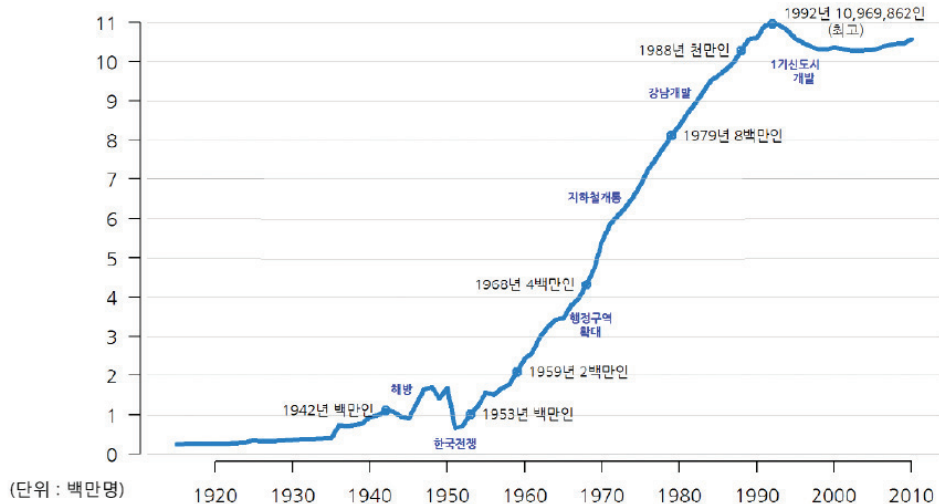
-서울시의 공유도시 선언 배경

-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 급증(예 : 청년 실업 문제)



〈그림 2〉 2000-2012년 청년층 취업률 감소 현황 ²⁾

-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 실종(주민의 낮은 정주율로 공동체 붕괴, 거주지 이동율 : 서울 17.4%, 전국 16.2%, 서울시 1일 6,500명 이사)



〈그림 3〉 산업화를 거치는 동안 서울의 인구 변화 ³⁾

- 과잉소비(Hyper Consumption)에 따른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 한편, 우수한 ICT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탄탄한 IT 인프라 보유



〈그림 4〉 OECD 주요국 초고속 무선 인터넷 보급률 ⁴⁾

3) 서울연구원, 2010, 지표로 본 서울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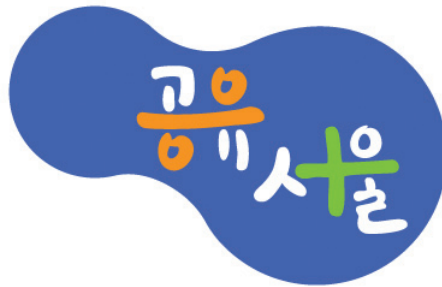
4) 연합뉴스, 2012. 7. 22

—공유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

- 발달된 IT 기반을 통해 무연사회를 극복하고 공동체 문제 해결
-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 적은 자원으로 최대한의 편익 도모, 예산 절감
- 새로운 경제 모델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소득 창출
-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한 공유의 특성상 시민 간의 교류 증대, 공동체 회복
- 과잉소비로 인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여 환경오염 방지

—공유도시 기반 조성 및 관련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

- ‘공유도시 서울’ 선언
-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제정
- ‘서울 공유허브’ 운영 지원(정보마당, 네트워크장, 캠페인, 교육 등)
-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비롯하여 소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문건, 콘텐츠 등 적극 개방
-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상반기 27개), 행정·재정적 지원



〈그림 5〉 공유도시 서울 BI 이미지⁵⁾

-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공청회, 강연행사, 박람회 등 개최
- 공유 저해요인 개선(공유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공유경제에 적합한 세제 논의)
- 주요 모델 사업 추진(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공유, 행정정보 및 공공데이터 공유, 장난감 도서관 등)



〈그림 6〉 서울시 녹색 장난감 도서관

5) 공유허브(<http://sharehub.kr>)

□ 도시정부 차원에서 공유활동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장려하는 사례는 서울이 전세계 중 최초

—샌프란시스코나 밴쿠버 등 공유 인식이 널리 퍼진 도시도 있으나 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공유’라는 키워드로 조례를 발표하고 전방위적으로 적극 추진하는 사례는 서울이 최초로 세계 많은 공유운동가들이 이에 주목함

3. 공유도시의 발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

현행법과의 상충과 공유에 대한 편견

□ 과세 측면에서의 현행법과 공유경제적 가치와의 불일치

- 뉴욕 주 vs 에어비앤비 : 내 집의 빈방에 투숙객을 받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도시민박으로 분류되는데, 뉴욕 주에서 최근 현행 숙박업법에서 도시민박은 불법이라 판결, 에어비앤비는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촉구할 뜻을 공표
- 암스테르담 등의 도시의 경우 공유경제에 한해 도시민박을 허가하는 것으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
- 서울시의 경우 한옥 형태의 가옥만이 도시민박으로 허락되고 있는 상황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법 개정 필요

□ 공유 인식의 부재

- 오랜 시간 제조와 소비를 미덕으로 여긴 물질주의 풍토가 심리적인 장애물로 존재
- 공유 행위가 인터넷에 기반을 둔다는 측면에서 신세대가 비교적 ICT 공유 플랫폼을 잘 활용할 것으로 기대
- 서울시와 ‘공유허브’의 지속적인 행사, 캠페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

□ 신뢰성 부족한 평가 시스템과 안전성 점검 시스템

- 각 서비스마다 평가 자료를 따로 보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러스트-클라우드(TrustCloud)와 같은 통합 평가 플랫폼이 필요
- 안전 보장을 위해 다양한 보험 모델의 필요성 대두

4. 결론

- 지구 재화의 부족 심화에 따라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경쟁의 시대(공유경제)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
-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공유를 일찍 시작하는 도시일수록 세계 변화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참고문헌

- 공유허브. 2013. 공유도시 서울. sharehub.kr/sharecityseoul.
- 레이첼 보츠먼 · 루 로저스/이은진 역. 2011. 위제너레이션. 모멘텀.
- 마틴 노왁 · 로저 하이필드/허준석 역. 2012. 초협력자. 사이언스 북스.
- 조인동. 2013. 공유경제와 공공부문의 역할. KEY. Platform 발표자료.
- 표제어 “두레” “품앗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David Hantman. 2013. Good News from Amsterdam. Airbnb.
- Dylan Love. 2013. Airbnb IS Declared Illegal in New York City. Business Insider.
- Jeremiah Owyang. 2013. The Dark Side to the Collaborative Economy.
<http://www.web-strategist.com/blog/2013/06/18/the-dark-side-to-the-collaborative-economy/>
- LLGA Cities Pilot the Future. 2013. 3Space : Turning Empty Space into an Opportunity-Regenerate
 Neighbourhoods Using Vacant Spaces, BARCELONA, SPAIN. llga.org/solution.php?idS=65.
- Neal Gorenflo. 2012. San Francisco Announces Sharing Economy Working Group. Shareable.
- Rory Smith. 2013. San Francisco Mayor Launches Sharing Economy Partnership for Disaster Response. Shareable.
- Tomio Geron. 2013. Airbnb and the Unstoppable Rise of the Share Economy. Forbes.
- Sharing economy probed in study funded by City of Vancouver. 2013.3.28.CBC News.
- 공유허브 홈페이지 (<http://sharehub.kr>)
- Sharable 홈페이지 (<http://www.shareable.net>)